

상상 속 첨단기술 현실로... 미래차 경쟁에 상용화 빨라진다

자율주행차, 예상보다 빠른 실용화
2인용 3륜차 같은 새로운 종류 차
전기차 주행거리, 내연기관 넘어

미래 자동차 기술이 현실에도 적용되고 있다. 전장과 전자 업계, 스타트업까지 경쟁에 가세하면서 첨단 기술 상용화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도 LG전자와 함께 개발한 P-OLED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EQS에 탑재한다.

P-OLED는 자동차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더 선명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내구성을 높이고 자유자재로 변형 가능한 OLED로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 등을 연결해 대시보드를 가득 채우는 수준으로 배치 가능하다. 캐딜락과 벤츠가 공식적으로 도입한 가운데, 렉



BMW가 소개한 시어터 스크린. /BMW

서리 라인업을 중심으로 도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BMW는 이번 CES2022에 시어터 스크린을 제시했다. 뒷좌석에 31.3인치에 8K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술적 문제가



포티투닷 자율주행택시. /포티투닷

없고 반응도 좋았던

스텔란티스도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한다. 아마존의 AI를 활용해 자율주행은 물론 BMW와 같이 아마존 콘텐츠도 같이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니가 선보인 비전S 콘셉트는 비단 전자업체인 소니가 만드는 전기차로도 주목받은 것이 아니다.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과 함께 뮤직과 픽처스 등 막강한 콘텐츠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차량용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자동차업계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집중하는 이유는 자율주행 시대에는 자동차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개인공간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차도 CES2022에서 미래에는 모빌리티



벤츠 EQS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대시보드를 덮는 형태로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할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도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가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자율주행차는 예상보다 더 빨리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최근 쌍용차까지 모든 라인업에 2.5단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현대차는 올해 말 특정 구간을 스스로 달리는 3단계 시험 운행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아니지만, GM이 내년 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중교통도 차츰 자율주행으로 변하고 있다. 세종시에 이어 제주도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서울 상암 일부 구간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택시 운행을 시작했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관교에서 자율주행차를 상용 운용 중이다.

아직은 카니발 등 내연기관차로 만든 자율주행차도 함께 운행 중이지만,

자율주행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 제어하기 쉬워서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벤츠가 최대 10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콘셉트 EQXX를 공개했을 만큼 주행 거리도 이제 내연기관을 뛰어넘어섰다. 기존 자동차 제조사 뿐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앞다퉈 새로운 기술을 내놓고 주행 거리를 늘리고 충전 속도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자동차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도 가까워졌다. 전동 킥보드와 바이크가 이미 활발하게 도로를 달리는 가운데, CES2022에서는 2인용 3륜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 자동차도 소개됐다. 현대차도 규제만 해결된다면 PnD 모듈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를 머지 않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가계대출 220조 ↑... 증가율 7.1%로 둔화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지난해 12월 주담대 2.6조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간 가계대출이 22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12월 증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전년(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해 전월인 11월 증가한 가계대출(5조9000억원)과 비교해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9000억원)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됐다.. 지난해 주택매매거래량은 8월 8만9000건에서 10월 7만5000건, 11월 6만7000건으로 줄었다. 주택거래가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줄었다는 설명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해 12월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연말성과급 유입 등으로 신용대출이 줄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카드대출이 줄면서 기타대출 감소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수딤타(Sudipta) CTO(왼쪽부터), 아다니그룹 가우탐(Gautam) 회장, 김학동 철강부부장(부회장),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인도에 친환경 일관제철소 만든다

아다니그룹과 합작사업

포스코가 인도 아다니 그룹과 친환경 일관제철소 등 합작사업을 추진한다. 포스코의 해외 일관제철소 건설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번째, 친환경 일관제철소 건설은 포스코 국내의 제철소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는 아다니그룹과 7일 온라인으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김학동 철강부부장(부회장) 및 아다니 가우탐 회장, 카란 항만·물류사업 CEO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인도내 친환경 일관제철소 합작을 비롯해 탄소저감 정책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소, 물류, 화학 등 그룹차원의 협력 가능한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제철소 건설 부지

는 인도 서북부 구자라트주 문드라 지역을 검토 중이다.

최정우 회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포스코의 제철 기술력과 아다니그룹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성이 결합할 경우 철강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사업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의 역량을 집중해 한국과 인도간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다니그룹은 1988년 설립됐다. 2020년에 매출액 150억 달러를 기록한 인도 최대의 에너지·물류기업이다. 항만 운영, 자원개발, 발전, 신재생에너지, 석유가스, 인프라 건설 및 운영 등 인도 전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생산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미래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수출입물가 2개월 연속 하락... 국제유가 영향

작년 11월 수출물가 11개월 연속 상승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국제유가 하락에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수출물가는 11개월 연속 상승, 수입물가는 6개월 연속 오름세 후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수출물가지수는 114.64(2015=100)로 전월 대비 1.0%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 다만 하락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23.5%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려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석탄 및 석유제품(-5.3%) ▲화학제품(-1.7%) 등이 줄어 전월보다 1.0% 감소했다. 다만 농림수산물품은 전월 대비 1.7% 확대됐다.

수입물가지수는 127.11로 전월보다

1.9% 줄었다. 수출과 함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29.7%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광산물,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린 영향이다.

광산물(-4.6%)을 포함한 원재료 수입물가가 4.3% 하락했다.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5.6%) ▲제1차 금속제품(-1.3%) 등을 중심으로 1.1% 감소했다. 자본재 역시 전월 대비 0.1% 줄었고, 소비재의 경우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